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 신 : 경실련 의정감시센터(센터장 박경준, 변호사)

담 당 : 경실련 의정감시센터(남은경 국장, 이가희 간사 02-744-0400)

제 목 : [보도자료] 서울 지방의원 임기 2년 조레 발의 실태발표 기자회견 (총 16매)

보도일자 : 2024. 9. 30. (월) (배포 후 즉시) | 배포일자 : 2024. 9. 30. (월)

[서울 지방의원 임기 2년 조레 발의 실태 분석 결과]
기초의원 16명, 2년간 조레 발의 실적 “0”
(기초)송파·강동·용산구 연 1건 이하 발의 의원 “多”
지방의원 입법역량 강화하고 저성과자는 의정비 반납해야

서울 지방의원 조레 발의 실태 발표 기자회견

2024년 9월 30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 사 회 : 남은경 경실련의정감시센터 국장
- ◆ 취지 설명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 내용 발표 : 이가희 경실련의정감시센터 간사
- ◆ 경실련 주장 : 박경준 경실련의정감시센터 센터장(변호사)
- ◆ 질의 응답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경실련은 오늘(9/30) <서울 지방의회 조례 발의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서울 광역 및 기초의원의 조례 미발의 등 부실 입법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인 2023년 9월, 임기 1년을 맞는 <전국 지방의원들의 조례 입법 실태>를 발표하여 실적이 저조한 의원 및 의회에 자성을 촉구하며,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의정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역경실련과 함께 지역별로 임기 2년차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 발의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조례 미발의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하고자 했다.

2. 서울시 지방의회 의원 조례 발의 실태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 : 서울특별시 광역의회 및 25개 기초의회 의원 발의 조례
- 평가기간 : (임기 **2년차**)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1년)
(임기 **2년간**) 2022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2년)
- 조사내용 : 의회·의원별·정당별 조례 발의 건수 및 미발의 의원 비율 및 명단
*미발의 의원 산정시 “의장”, “비현역”, “재보궐”, “의원직 승계” 의원은 제외
- 조사방법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각 의회 통지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의회 기본정보

3. 조사 결과

(1) 서울 지방의회 2년차 조례 발의 실태

■ 조례 미발의 실태

○ 111명의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 중 5명(4.5%)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아 전년도 4명(3.6%)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미발의 의원 5명 모두 겸직 중이며, 이들 중 2명은 의정비 외에 겸직 보수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서울시 지방의회 조례 미발의 의원 겸직 실태

(단위 : 명, 만원)

구분	의원수 (A)	미발의 의원수(B)	미발의 겸직의원수(C)	미발의 겸직 비율(C/B)	미발의 겸직보수 수령의원(D)	미발의 겸직보수 수령 비율(C/D)
광역의회	111	5	5	100%	2	40.0%
기초의회	426	43	20	46.5%	9	45.0%
합계	537	48	25	52.0%	11	44.0%

○ 기초의회 미발의 의원은 전년도 60명(14.1%)에서 올해 43명(10.0%)로 소폭 감소했고, 이들 중 20명(46.5%)이 겸직 중이며 9명이 보수를 받는 겸직을 하고 있었다. 1년간 입법 실적 전무함에도 연 5천만원을 상회하는 의정비를 수령하면서 외부 겸직을 수행하고 별도의 보수까지 수령하는 의원들이 과연 공직에 전념하여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들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서울시 광역의회 미발의 의원은 5명이며 박중화(국민의힘, 성동구1), 서호연(국민의힘, 구로구3) 의원은 의정활동비 외에 별도 보수를 받는 겸직을 맡고 있고, 경기문(국민의힘, 강서구6), 이상훈(더불어민주당, 강북구2), 이승복(국민의힘, 양천구4) 의원은 무보수 겸직 중이다.

○ 서울시 기초의회 미발의 의원은 총 43명으로 미발의 의원 비율이 높은 순으로 송파구(7명, 26.9%), 서초구(4명, 25.0%), 강동구(4명, 22.2%), 양천구(4명, 22.2%) 순으로 조사됐다.

* 명단은 첨부 보고서 [표 9] 2년차 서울시 기초의회 조례 미발의 의원 명단 참조.

○ 정당별 미발의 의원 수는 광역 및 기초 모두 국민의힘 의원의 미발의 비율이 높았다. 광역은 5명 중 4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1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기초의회는 43명 중 22명이 국민의힘, 18명이 더불어민주당, 3명이 무소속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의 약 10%가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았는데, 이 중 14명(63.6%)은 겸직을 하고 있어 겸직 비율도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 8.9% 의원이 미발의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6명(36.4%)이 겸직 중으로 나타났다.

[표 2] 서울시 기초의회 미발의 의원 소속 정당

(단위 : 명, %)

구분	총 의원수 (A)	미발의 의원수 (B)	미발의 의원 비율 (B/A)	겸직의원수 (C)	미발의 의원 겸직비율 (C/B)
국민의힘	210	22	10.5%	14	63.6%
더불어민주당	203	18	8.9%	6	8.9%
진보당	1	-	-	-	-
개혁신당	1	-	-	-	-
조국혁신당	1	-	-	-	-
무소속	10	3	3.2%	-	-
합 계	426	43	11.2%	20	45.1%

(2) 서울시 지방의회 2년간 조례 발의 실태

■ 조례 미발의/부실발의(연 1건 이하) 실태

○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 중 2년간 미발의 의원은 없고, 연 1건 이하 부실한 입법 발의 의원은 7명(6.3%)으로 나타났다.

○ 서울 기초의회 중 2년간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 비율이 높은 곳은 송파구 (19.2%), 강동구(11.1%), 영등포구(11.8%)의회로 나타났다. 송파구가 5명으로 가장 많고, 강동구, 영등포구, 강남구 각 2명, 용산구, 서초구, 동대문구, 강서구, 관악구 각 1명으로 총 16명의 기초의원이 2년간 조례발의 실적이 전무했다.

[표 3] 서울시 지방의회 2년간 부실 입법(연 1건 이하)현황_연 1건 발의 비율 높은 순
(단위 : 명, %)

의회명	총 의원수 (A)	2년간 0건 의원수 (B)	2년간 0건 비율(B/A/100)	연 1건 발의 이하 의원수 (C)	연 1건 발의 비율(C/A/100)
서울시	111	-	-	7	6.3%
1 송파구	26	5	19.2%	18	69.2%
2 강동구	18	2	11.1%	9	50.0%
3 용산구	13	1	7.7%	6	46.2%
4 은평구	19	-	-	8	42.1%
5 성북구	22	-	-	9	40.9%
6 양천구	18	-	-	5	27.8%
7 강남구	23	2	8.7%	6	26.1%
8 서초구	16	1	6.3%	4	25.0%
9 영등포구	17	2	11.8%	4	23.5%
10 마포구	18	-	-	4	22.2%
11 노원구	21	-	-	4	19.1%
12 구로구	16	-	-	3	18.8%
13 동대문구	19	1	5.3%	3	15.8%
14 성동구	14	-	-	2	14.3%
15 서대문구	15	-	-	2	13.3%
16 강서구	23	1	4.4%	3	13.0%
17 동작구	17	-	-	2	11.8%
18 중구	9	-	-	1	11.1%
19 광진구	14	-	-	1	7.1%
20 도봉구	14	-	-	1	7.1%
21 중랑구	17	-	-	1	5.9%
22 관악구	22	1	4.6%	1	4.6%
23 종로구	11	-	-	-	-
24 금천구	10	-	-	-	-
25 강북구	14	-	-	-	-
합계	426	16	4.7%	97	22.5%

- 2년간 연 1건 이하(미발의, 1건 발의, 2건 발의) 조례 발의 의원 비율도 송파구(69.2%), 강동구(50.0%), 용산구(46.2%), 은평구(42.1%), 성북구(40.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 1건 이하 발의 비율이 높은 이들 5개 의회는 의원 절반이 입법 실적이 저조해 전반적으로 입법 활동이 부실했다.
- 2년간 1건의 조례발의도 하지 않은 불성실 의원은 총 16명으로, 강남구의회 전인수(국민의힘), 황영각(국민의힘), 강동구의회 서회원(국민의힘, 유보수 겸직), 조통탁(국민의힘), 강서구의회 조기만(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의회 임춘수(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의회 이태인(무소속), 서초구의회 고선재(국민의힘), 송파구의회 김성호(국민의힘, 유보수 겸직) 이강무(국민의힘, 유보수 겸직), 박성희, 김정열, 정주리(이하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의회 정선희(더불어민주당), 최인순(더불어민주당, 유보수 겸직), 용산구의회 장정호(국민의힘)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주장

▲ 서울시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의 문제점

- 2년간 서울시 지방의회의 입법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일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여전히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실시한 임기 1년차 조례 발의 실태 조사에 이어, 임기가 본격화된 2년차 조사 결과에서 전반적인 조례 발의 실적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미발의 의원의 수는 소폭 감소에 그쳤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여전히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주요 부분인 입법 활동을 등한시 하였다.
- 2년을 종합한 조례 발의 실적에서 서울시의회에는 미발의 의원이 없었으나 기초의회는 전체 의원 중 4.7%인 16명 의원이 2년간 조례 발의 실적이 전무하였다. 연 1건 이하 발의 의원도 서울시의회는 7명(6.3%), 기초의회는 97명(22.5%)이 대상자로 기초의회 의원들의 입법 실적이 더 부실했다.

▲ 의정활동 개선의 필요성

- 입법 활동의 질은 단순히 발의된 조례의 수 외에도 지역민의 요구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으로서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회 이하 발의 수준에 그친 의원들을 지방의원직에 전념하여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 자질마저 의심된다. 입법 실적

은 전무한데 외부 검직을 수행하고, 일부는 별도 보수까지 수령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욱더 납득하기 어렵다.

-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면, 입법 활동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의원의 입법 역량 강화와 의정비 지출 대비 효율성 평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각 지방의회와 정당은 입법 활동이 저조한 의원들에 대한 내부 점검과 지방의회 입성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입법 활동 저성과자로 판명된 의원들은 의정비 자진 반납해야

-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저조한 입법 실적은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이 부실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철저하게 반성하고 남은 임기 동안 부족한 입법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각 정당은 입법 활동이 전무하거나 실적이 미진한 의원은 성실하고 올바른 공직을 수행하기에는 자격이 의심되므로 차기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낭비된 의정비에 대해서는 반납토록하여 부실 의정활동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입법과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는 지방의회 환경을 조성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 경실련은 지방의원들이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끝

[첨부] 서울시 지방의회 의원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 보고(총 10매)

서울 지방의원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 보고

1. 조사 배경 및 목적

- 지방의회(의원)는 주민들이 위임한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주체임.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성실히 입법 활동을 수행할 의무를 갖으며 이는 지방의원의 기본자질에 해당함.
- 최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증대된 지원에 부응하여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서 성과를 내왔는지는 의문임. 이는 정책 및 의정 역량 등 의원 후보의 기본자질에 대한 검증 없이 다수당의 공천을 받고 원내에 입성하는 공천시스템과 감시받지 않은 권력에서 파생되는 문제임. 지방의회는 신뢰를 받기는 커녕 주민들로부터 그 존재 이유마저 부정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룸.
- 이에 경실련은 지방의원의 성실한 직무수행 여부 및 정책역량 확인을 위해 작년에 이어 서울시 지방의원의 임기 2년간의 조례 발의 현황을 조사하였고, 부실한 입법 활동을 드러내고 자함.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의회 정책역량의 강화되고 조례 발의 실적이 부실한 의원들이 성찰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함.

2.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서울특별시 광역의회 및 25개 기초의회 의원 발의 조례
- 평가기간 : (임기 **2년차**)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1년)
(임기 **2년간**) 2022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2년)
- 조사내용 : 의회·의원별·정당별 조례 발의 건수 및 미발의 의원 비율 및 명단
*미발의 의원 산정시 “의장”, “비현역”, “재보궐”, “의원직 승계” 의원은 제외
- 조사방법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각 의회 통지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의회 기본정보

3. 조사결과

1. 서울시 지방의회 임기 2년차 조례발의 실태

1) 광역의회

① 조례 미발의 현황

○ 민선 8기 서울시의회 임기 2년차 의원 1인당 발의한 조례 수는 5.2건으로, 전년도 4.2건보다 증가하였음.

[표 1] 2년차 서울시 광역의회 조례 발의건 현황

(단위 : 명, 건)

구분	의원수 (A)	발의 건수 (C)	의원당 발의건수 (D=C/A)	전년도 의원수 (A*)	전년도 발의 건수 (C*)	전년도 의원당 발의건수 (D*=C*/A*)
광역의회	111	575	5.2	112	466	4.2

○ 임기 2년 차에 의원 1인당 평균 5.2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미발의 의원은 5명으로 전체 111명 중 약 4.5%로 조사됨. 지난해 4명에서 오히려 1명(3.6%) 증가했는데, 임기 2년 차에 전반적으로 조례발의 건수가 증가한 추세에 비추어 부실한 입법활동 의원은 오히려 늘어남.

[표 2] 2년차 서울시 광역의회 조례 미발의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의원수 (A)	미발의 의원수(B)	미발의비율 (B/A/100)	전년도 의원수(A*)	전년도 미발의 의원수(B*)	전년도 미발의 비율 (B*/A*/100)
광역의회	111	5	4.5%	112	4	3.6%

② 조례 미발의 의원 겸직 현황

○ 서울시의회 조례 미발의 의원 5명 모두 겸직을 하고 있으며, 이들 중 2명(40%)은 겸직 보수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의회는 겸직 보수를 공개하지 않아 보수액을 확인할 수 없지만 2명 의원은 연 7,405만원의 의정비 외에 겸직 보수까지 받으며 지방의원의 주요 역할인 입법 활동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표 3] 서울시 광역의회 조례 미발의 의원 겸직 실태

(단위 : 명, 만원)

구분	의원수 (A)	미발의 의원수(B)	미발의 겸직의원수(C)	미발의 겸직 비율(C/B)	미발의 겸직보수 수령의원(D)	미발의 겸직보수 수령 비율(C/D)
광역의회	111	5	5	100%	2	40.0%

③ 조례 미발의 의원 명단

- 임기 2년차 조례 발의 실적이 없는 의원 5명 중 4명은 전년도 발의 실적도 1건으로 연 평균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입법 활동이 부실했는데, 박중화(국민의힘, 성동구1), 서호연(국민의힘, 구로구3) 의원은 의정활동비 외에 별도 보수를 받는 겸직을 맡고 있음. 서울시의회가 겸직 보수액을 공개하지 않아 금액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일반 근로자소득을 상회하는 의정활동비가 지급됨에도 이들 의원들의 부실한 입법 실적을 보면 과연 의원직에 전념하며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의문임.

[표 4] 2년차 서울시 광역의회 조례 미발의 의원 명단

(단위 : 건, 만원)

NO	성명	소속정당명	선거구명	전년도 조례발의	겸직 여부	겸직 보수액	의정비*
1	박중화	국민의힘	성동구제1	1	유	비공개**	7,405
2	이승복	국민의힘	양천구제4	1	무	비공개	
3	서호연	국민의힘	구로구제3	3	유	비공개	
4	경기문	국민의힘	강서구제6	1	유	무보수	
5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강북구제2	1	유	무보수	

*서울시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합산액(2024년 최근 기준)

**서울시의회는 겸직보수액을 공개하지 않음.

2) 기초의회

① 조례 미발의 현황

- 임기 2년차 서울시 기초의회 의원이 1년 동안 1,367건의 조례를 발의했으며, 의원 1인당 평균 3.2건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남. 전년도와 비교하면 1인당 발의 건수는 2.7건에서 3.2건으로 증가하여 임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입법 활동이 개선된 것으로 보임.

[표 5] 2년차 서울시 기초의회 조례 발의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의원수 (A)	발의 건수 (C)	의원당 발의 건수 (D=C/A)	전년도 의원수(A*)	전년도 발의 건수(C*)	전년도 의원당 발의 건수 (D*=C*/A*)
기초의회	426	1,392	3.3	427	1,141	2.7

- 임기 2년차 서울시 기초의회 의원 중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은 미발의 의원은 43명 (10.1%)으로 나타남. 전년도 60명(14.1%)에서 소폭 감소했으나 지방의회가 2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입법 실적이 개선되지 못한 의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표 6] 2년차 서울시 기초의회 조례 미발의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의원수 (A)	미발의 의원수(B)	미발의 비율 (B/A/100)	전년도 의원수(A*)	전년도 미발의 의원수(B*)	전년도 비율 (B*/A*/100)
기초의회	426	43	10.1%	427	60	14.1%

* 손주하의원(중구의회,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없으나, 소재권의원(중구의회, 국민의힘)과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대표발의하여 미발의 의원에서 제외함.

- 미발의 의원 비율이 높은 서울 기초의회는 송파구(26.9%), 서초구 (25.0%), 강동구 (22.2%), 양천구(22.2%) 순으로 나타남. 임기 2년 차에 구로구, 종로구, 중구, 노원구, 금천구, 성동구 의회 소속 의원 중에 조례 미발의 대상은 없음.
- 서울시 25개 구의회 중 5개 의회(20%)의 미발의 의원이 26명으로 전체 미발의 의원의 50%를 차지하여 일부 구의회가 입법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의회 차원에서 입법 활동 개선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의정비는 서울시 기초의회 평균 기준 5,258만 원으로, 대부분의 기초의회 의원들은 5천만 원을 상회하는 의정비를 받고 있음. 송파구(5,530만 원), 서초구(5,604만 원)는 상대적으로 높은 의정비를 받지만 조례 미발의 의원 비율도 높아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 강화가 필요할 것임.

[표 7] 서울시 기초의회별 조례 미발의 의원 현황 (미발의 의원비율순)

(단위 : 명, 만원)

순위	자치단체	의원수 (A)	미발의 의원수 (B)	미발의 의원 비율(B/A/100)	의정비
1	송파구	26	7	26.9%	5,530
2	서초구	16	4	25.0%	5,604
3	강동구	18	4	22.2%	5,243
4	양천구	18	4	22.2%	5,295
5	강남구	23	4	17.4%	5,855
6	용산구	13	2	15.4%	5,102
7	강서구	23	3	13.4%	5,154
8	서대문구	15	2	13.3%	5,184
9	영등포구	17	2	11.8%	5,273
10	성북구	22	2	9.1%	5,200
11	강북구	14	1	7.1%	5,179
12	광진구	14	1	7.1%	5,246
13	도봉구	14	1	7.1%	5,026
13	동작구	17	1	5.9%	5,052
15	중랑구	17	1	5.9%	5,190
15	마포구	18	1	5.6%	5,041
15	동대문구	19	1	5.3%	5,225
18	은평구	19	1	5.3%	5,125
19	관악구	22	1	4.6%	5,316
20	구로구	16	-	-	5,084
20	종로구	11	-	-	5,172
20	중구	9	-	-	5,736
20	노원구	21	-	-	5,470
20	금천구	10	-	-	4,975
20	성동구	14	-	-	5,186
25개 서울 기초의회 계		426	43	10.1%	5,258

② 조례 미발의 의원 겸직 현황

- 임기 2년차 서울시 기초의회에서 1년간 조례 발의 실적이 전무한 미발의 의원의 20%는 외부에서 보수를 받는 겸직을 수행하고 있음. 조례 미발의 의원 43명 중 20명(46.5%)은 겸직 중이며, 이중 절반 정도의 의원은 별도의 보수를 받는 겸직을 수행하고 있음. 공직에 전념하여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겸직이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기초의회 의원 1인 평균 5천 만원을 상회하는 의정비가 주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부실한 입법 활동 의원들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표 8] 서울시 기초의회 조례 미발의 의원 겸직 실태

(단위 : 명, 만원)

구분	의원수 (A)	미발의 의원수 (B)	미발의 겸직 의원수(C)	미발의 의원 겸직 비율(C/B)	미발의 겸직보수 수령의원(D)	미발의겸직보수 수령의원 비율 (C/D)
기초의회	426	43	20	46.5%	9	45.0%

③ 조례 미발의 의원 명단

- 2년 차 조례 미발의 의원 43명이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충실하게 활동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전년도 입법 실적 및 겸직 여부와 보수 수령 여부도 함께 살펴봄. 43명 중 16명(37.2%)은 전년도에도 조례 발의를 하지 않아 2년간 실적이 전무했음. 16명 중 절반이 넘는 10명이 겸직도 맡고 있었음
- 의회별로 부실한 입법 실적 의원이면서 겸직 중인 의원으로는, 강남구의회 전인수, 황영각(이하 국민의힘), 강동구의회 서회원, 조동탁(이하 국민의힘) 의원이며, 서회원의원은 보수를 받는 겸직을 수행하고 있음. 송파구의회 김성호, 이강무(이하 국민의힘), 영등포구의회 최인순, 정선희(이하 더불어민주당), 용산구의회 장정호(국민의힘) 의원도 겸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조례발의 실적이 없어 부실한 입법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남.

[표 9] 2년차 서울시 기초의회 조례 미발의 의원 명단

(단위 : 건, 만원, 만원)

NO	의회명	성명	소속정당명	선거구명	1년차 발의 건수	겸직 여부	겸직 보수
1	강남구의회	전인수	국민의힘	가 선거구	-	유	-
		황영각	국민의힘	나 선거구	-	유	-
		이성수	국민의힘	아 선거구	1	유	-
		이향숙	국민의힘	자 선거구	4	유	-
2	강동구의회	서회원	국민의힘	나 선거구	-	유	비공개
		조동탁	국민의힘	마 선거구	-	유	-
		한진수	국민의힘	다 선거구	1	무	-
		박원서	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	2	무	-
3	강북구의회	최치효	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	3	유	비공개
4	강서구의회	조기만	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	무	-

NO	의회명	성명	소속정당명	선거구명	1년차 발의 건수	검직 여부	검직 보수	
	2		이충현	국민의힘	바 선거구	1	무	-
	3		김민석	무소속	라 선거구	8	무	-
5	1 관악구의회	임춘수	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	-	무	-	
6	1 광진구의회	고양석	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	1	무	-	
7	1 동대문구의회	이태인	무소속	바 선거구	-	무	-	
8	1 마포구의회	최은하	더불어민주당	아 선거구	1	무	-	
9	1 동작구의회	정세열	국민의힘	마 선거구	2	무	-	
10	1 도봉구의회	강철웅	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	2	유	400*	
11	1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더불어민주당	마 선거구	2	유	비공개	
		박경희	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	4	무	-	
12	1 서초구의회	고선재	국민의힘	나 선거구	-	무	-	
		김성주	국민의힘	라 선거구	2	유	-	
		박미정	국민의힘	가 선거구	3	유	비공개	
		이형준	국민의힘	마 선거구	5	무	-	
13	1 성북구의회	진선아	국민의힘	마 선거구	1	무	-	
		임태근	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	1	무	-	
14	1 송파구의회	김성호	국민의힘	자 선거구	-	유	12,000	
		이강무	국민의힘	가 선거구	-	유	3,700	
		박성희	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	-	무	-	
		김정열	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	-	무	-	
		정주리	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	무	-	
		이하식	국민의힘	사 선거구	1	유	4,440	
		김샤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	유	-	
15	1 양천구의회	임옥연	무소속	사 선거구	1	무	-	
		임정옥	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	3	무	-	
		최혜숙	국민의힘	아 선거구	1	무	-	
		공기환	국민의힘	가 선거구	1	무	-	
16	1 영등포구의회	최인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유	5,000*	
		정선희	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	-	유	-	
17	1 용산구의회	장정호	국민의힘	라 선거구	-	유	-	
		김성철	국민의힘	다 선거구	2	유	-	
18	1 중랑구의회	박열완	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	2	무	-	
19	1 은평구의회	황재원	국민의힘	라 선거구	2	유	-	

*강철웅의원(도봉구의회, 더불어민주당)/최인순의원(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의 검직보수액은 홈페이지 공개 내역 참고

3) 정당별 조례 미발의 의원 및 검직 실태

○ 서울시 광역의회의 경우 미발의 의원 5명 중 4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나타나 국민의힘의 미발의 의원 비율이 높았음.

- 서울시 기초의회는 조례 미발의 의원 43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18명, 무소속 3명으로 나타남.
- 국민의힘 의원의 약 10%가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았는데, 이 중 14명(63.6%)은 검직을 하고 있어 검직 비율도 가장 높음. 더불어민주당은 18명 의원이 미발의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6명(36.4%)이 검직 중으로 나타남. 기타 무소속 3명(3.2%)이 조례 미발의 상태임

[표 10] 서울시 기초의회 미발의 의원 소속 정당

(단위 : 명, %)

구분	총 의원수 (A)	미발의 의원수 (B)	미발의 의원 비율 (B/A)	검직의원수 (C)	미발의 의원 검직비율 (C/B)
국민의힘	210	22	10.5%	14	63.6%
더불어민주당	203	18	8.9%	6	8.9%
진보당	1	-	-	-	-
개혁신당	1	-	-	-	-
조국혁신당	1	-	-	-	-
무소속	10	3	3.2%	-	-
합 계	426	43	11.2%	20	45.1%

2. 서울시 지방의회 2년간 조례 미발의 실태

- (광역의회) 총 111명의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중 임기 2년 동안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대상자가 없었음. 다만 2년간 조례발의 실적이 2건 이하로 연간 1건 이하 발의자는 7명(6.3%)으로 부실한 입법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남.
- (기초의회) 서울 기초의회 중 2년간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 비율이 높은 곳은 송파구(19.2%), 강동구(11.1%), 영등포구(11.8%) 의회로 나타남. 송파구가 5명으로 가장 많고, 강동구, 영등포구, 강남구 각 2명, 용산구, 서초구, 동대문구, 강서구, 관악구 각 1명으로 총 16명의 기초의원이 2년간 조례발의 실적이 전무함.
- (기초의회) 2년간 연 1건 발의 이하(미발의, 1건 발의, 2건 발의) 부실 입법 의원 비율도 송파구(69.2%), 강동구(50.0%), 용산구(46.2%), 은평구(42.1%), 성북구(40.9%) 순으로 높게 나타남. 연 1건 발의 비율이 높은 5개 의회는 의원 절반이 입법 실적이 저조해 전반적으로 입법 활동이 부실함.

[표 11] 서울시 지방의회 2년간 부실 입법(연 1건 이하)현황_연 1건 발의 비율 높은 순
(단위 : 명, %)

의회명	총 의원수 (A)	2년간 0건 의원수 (B)	2년간 0건 비율(B/A/100)	연 1건 발의 이하 의원수 (C)	연 1건 발의 비율(C/A/100)
서울시	111	-	-	7	6.3%
1 송파구	26	5	19.2%	18	69.2%
2 강동구	18	2	11.1%	9	50.0%
3 용산구	13	1	7.7%	6	46.2%
4 은평구	19	-	-	8	42.1%
5 성북구	22	-	-	9	40.9%
6 양천구	18	-	-	5	27.8%
7 강남구	23	2	8.7%	6	26.1%
8 서초구	16	1	6.3%	4	25.0%
9 영등포구	17	2	11.8%	4	23.5%
10 마포구	18	-	-	4	22.2%
11 노원구	21	-	-	4	19.1%
12 구로구	16	-	-	3	18.8%
13 동대문구	19	1	5.3%	3	15.8%
14 성동구	14	-	-	2	14.3%
15 서대문구	15	-	-	2	13.3%
16 강서구	23	1	4.4%	3	13.0%
17 동작구	17	-	-	2	11.8%
18 중구	9	-	-	1	11.1%
19 광진구	14	-	-	1	7.1%
20 도봉구	14	-	-	1	7.1%
21 중랑구	17	-	-	1	5.9%
22 관악구	22	1	4.6%	1	4.6%
23 종로구	11	-	-	-	-
24 금천구	10	-	-	-	-
25 강북구	14	-	-	-	-
합계	426	16	4.7%	97	22.5%

4. 결론 및 주장

▲ 서울시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의 문제점

- 2년간 서울시 지방의회의 입법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일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여전히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지난해 실시한 임기 1년차 조례 미발의 실태 조사에 이어, 임기가 본격화된 2년차 조사 결과에서 전반적인 조례 발의 실적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미발의 의원의 수는 소폭 감소에 그쳐 여전히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주요 부분인 입법 실적은 부진함.

- 2년을 종합한 조례 발의 실적에서 서울시의회에는 미발의 의원이 없었으나 기초의회는 전체 의원 중 4.7%인 19명 의원이 2년간 조례 발의 실적이 전무함. 연 1건 이하 발의 의원도 서울시의회는 7명(6.3%), 기초의회는 97명(22.5%)이 대상자로 기초의회 의원들의 입법실적이 더 부실함.

▲ 의정활동 개선의 필요성

- 입법 활동의 질은 단순히 발의된 조례의 수 외에도 지역민의 요구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으로서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회 이하 발의 수준에 그친 의원들을 지방의원직에 전념하여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 자질마저 의심된다. 입법 실적은 전무한데 외부 검직을 수행하고, 일부는 별도 보수까지 수령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움.
-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면, 입법 활동의 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방의원의 입법 역량 강화와 의정비 지출 대비 효율성 평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각 지방의회와 정당은 입법 활동이 저조한 의원들에 대한 내부 점검과 지방의회 입성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입법 활동 저성과자 의원들은 의정비 자진 반납해야

-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저조한 입법 실적은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이 부실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철저하게 반성하고 남은 임기 동안 부족한 입법 활동을 강화해야 함.
- 각 정당은 입법 활동이 전무하거나 실적이 미진한 의원은 성실하고 올바른 공직을 수행하기에는 자격이 의심되므로 차기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함. 부실한 입법활동으로 주민의 예산을 낭비한 저성과 의원들은 의정비를 자진 반납해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함.
- 마지막으로 입법과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는 지방의회 환경을 조성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어야 함. 경실련은 지방의원들이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임. <끝>